

숨과 심

삼애교회 목회서신

2020. 5. 10. 제40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편집 발행인 김동환
031-975-1885, 1884(fax)
<http://samae.yonsei.ac.kr>
love3@yonsei.ac.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양? 어떤 양?

베드로전서 2:19-25 요한복음서 10:1-6

요한복음서 10장 전반부와 베드로전서 3장 후반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양’입니다. 두 곳 모두 양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을 누구에게 비유하나요? 바로 우리에게 비유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로 비유되나요? 목자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요 10:14)입니다. 그런데 양과 목자의 역할에 있어서 파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15절). 분명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위해 대신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설령 아무리 선한 동물애호가에게도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애호가로서 나는, 대기 온실가스로 빙하가 녹아서 빙하 벼랑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펭귄들이 구하고 대신 죽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또한 가능한가요? 펭귄이나 양과는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르고 뛰어난 인간으로서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말이 되고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목자)이 동물(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양이 양을 위해 죽는 것은 말도 되고 가능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벼랑 끝에서 다른 양들을 구하고 대신 떨어져 죽는 양 말입니다. 가족 양이 아닌 생판 모르는 양을 위해 대신 죽는 양이 실제로 없어서 그렇지 말은 됩니다.

이렇게 말이 되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 자체가 초월적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聖肉身, incarnation)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 인간인 목자로 비유된 그리스도가 또한 동물인 양으로도 비유됩니다. “어린 양” 구체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로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목자가 인간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키우는 동물인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양들을 너무 사랑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 대신 죽으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것을 철저히 순종하여 실현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뚫뚫 뭉친 사랑의 에벤저스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양인데 선한 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자는 선하고 그 선한 목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급감시켜서 선한 양이 되어 대신 죽는데, 그 구원의 대상인 양들인 우리는 “길 잃은 양”(벧전 2:25)이라는 점입니다. 길 잃은 양은 어떤 양일까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6절)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그 다음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각자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놓고선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그 다음에 이와는 전혀 다른 양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

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7절). 문장 전 후의 두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양이고, 주님도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두 양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는 길을 잃고 결국 자기 살길만 챙겨서 떠나는 양인데, 또 하나는 그런 이기적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는 양입니다.

이제 여지껏 살펴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양인데 어떤 양이 되어야겠습니까? 여전히 길 잃은 양이어야 되겠습니까?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는 양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안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 선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은 못되더라도 더 이상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는 양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이제부터는 선한 목자의 말을 잘 듣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착한 양, 선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요 10:6)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길 잃은 양,”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 된 존재, 이기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선하고 이타적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으로 갈 끈을 애초에 끊어야 합니다.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고 나의 근본 존재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 곧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벧전 2:25)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목자를 따라가다가는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기독교 이단 단체인 신천지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교주 이만희의 실체가 공식 언론을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는 양들을 잘 못 인도하는 목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1절). 따라서 양인 우리는 올바른 문으로 들어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목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된 교주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세속적으로 이끄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속적 가치들을 우리 삶의 목자로 여기고 그 길로 따라갈 때 우리는 도둑이요 강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결국 최후 심판의 날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될 어리석은 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도 선한 목자 주님처럼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겸손해도 너무 겸손해서 스스로 양이 되신 목자, 선행도 너무 선행해서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 되신 목자, 사랑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다른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목자,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양 중에서도 그런 양 되시기를, 그런 양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 동 환 목사 (2020. 5. 3.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